

태양보다 뜨거운 젊음으로 청춘의 끼 발산하다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 주최 '제13회 광주·전남 청소년축제'

광주·전남 중·고교 동아리 K팝·클래식 연주·노래·춤 실력 “우리들이 즐길 무대 마련돼 기뻐...많은 분들 함께 즐기길”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부러진 것처럼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광주시 동구 금남로 공원이 청소년의 합성과 꿈, 열정이 펼쳐지는 무대로 변했다. 가호의 노래 '시작'을 전남대 그룹사운드 '매세'가 무대에 올리자 시민이 삼삼오오 금남로 공원으로 발길을 옮겼다.

광주일보사와 (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하는 제13회 광주·전남 청소년축제가 2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청소년 종합 문화예술축제인 이번 행사에서는 광주·전남 중·고교 청소년 동아리들이 K팝과 클래식 장르를 넘나드는 연주와 노래실력을 뽐냈다. 이들은 그룹사운드, 댄스, 실용음악 장르에서 다양한 레퍼토리와 실험적인 공연을 선보였다.

전남대 학생들로 구성된 '매세' (매운새우깡)은 메이플, 새벽울림팀의 연합밴드로 중·고교생들을 위해 축하공연을 펼쳤다. 이들은 '시작' '돈키호테', '스퀘어' (Square), '롤링 인 더 딥' (Rolling in the Deep)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갈채를 받았

다. 이 팀의 리더 오은비(전남대 불문과 2년)씨는 “후배들과 함께하는 무대가 뜻깊다. 항상 꿈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며 노래를 선불했다.

광주·전남 청소년축제에 13년째 참가하고 있는 효천밴드는 '청춘찬가', '휘이', '아니 근데 진짜' 등 곡을 연주해 인기를 독차지했다. 효천중학교 1,2학년으로 구성된 이들은 어쿠스틱 기타와 바이올린, 키보드 등 다양한 조합이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지도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통기타를 연주하는 등 사제 동행 무대를 연출했다.

전담고 학생들로 구성된 '윌스밴드'는 유다빈 밴드의 노래 'LETTER'와 '스물다섯 스물하나' 등 다양한 곡들을 들려줬다. 아마추어 답지 않은 보컬의 가창력과 밴드의 연주실력으로 눈길을 끌었다.

효천댄스팀은 화려한 춤사위를 행사 열기를 끌어올렸다. 효천중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다. 리더 김혜원, 박유은, 최아영, 박은우 등이 팀을 이휘 감쪽하고 발랄한 춤사위를 선보였다.

전남여고 댄스팀 시크(Chic)는 자신들이 추구



광주일보사와 (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한 제13회 광주·전남 청소년축제가 2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전남여고 학생들로 구성된 '시크' 팀이 역동적인 춤사위를 선보이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하는 '걸스 힙합'을 선보였다. 파워풀한 댄스와 K팝 그룹의 칼군무를 연상케하는 역동적인 춤으로 무대에 열기를 더했다. 리더 김도은(2년)양은 “우리들이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마련돼 좋다. 시크의 댄스를 많은 분들이 즐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용음악 부문 출연팀인 데이지는 전자첼로로 K팝과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색다른 무대를 선보

였다. 아이리스(서강고), 루미너스(신가중), 광서영(첨단고) 등도 무대에 올라 관객을 만났다.

광주·전남 청소년 축제는 해를 거듭해오면서 청소년들의 음악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요 대학 입시홍보관이 마련됐고, 학교폭력·음연예방 홍보 캠페인도 진행됐다.

광주·전남 청소년축제는 2012년부터 매년 개최

되고 있다. 2회 대회까지 광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열렸고, 3회부터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금남로공원 등지에서 개최되고 있다. 광주시, 전남도,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지역 주요 대학이 후원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비엔날레 폴리에 머리 다쳐” 1년8개월만에 소송, 결과는?

시민, 광주시 상대 손해 배상...재판부 “인과관계 단정 어려워”

광주 비엔날레 행사의 하나로 제작된 '광주 폴리' (Gwangju Folly)에서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한 시민이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민이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상호)는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27일 오후 7시께 광주전 제방(광주 북구 임동 627)에 위치한 '광주전 독서실'이라는 '광주폴리' 작품의 계단을 오르다 머리를 다쳤다”며 지난해 8월에 광주시를 상대로 3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2021년 9월과 10월 광주시 복구를 상대로 사고 재발 조치를 해달라는 등의 민원을 넣자 광주시가 계단 상부에 안전가드를 설치하고 계단쪽으로 보행자가 가지 못하도록 안전간판을 설치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작품이 계단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천장 높이가 낮아져 머리가 부딪치면 충격을 받는 구조로 설치 됐음에도 광주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후 안전 조치를 한 것을 보더라도 광주시가 안전시설 설치 미흡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천장 부분이 낮

아지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개방된 부분으로 올라가는 경우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고, 보행사람이 일반적으로 앞을 보는 정도의 주의만 기울이면 계단 형태를 인지 할 수 있다”면서 “밝은 정도, 공간의 넓이 등의 문제로 안전상의 관리를 요한다거나 일반인이 계단의 형태를 인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이후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사건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병원기록을 보더라도 A씨는 이후에도 다른 곳에서 수차례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점을 보면 인과관계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민사소송 전자문서 안 봐도 등록 7일 후 송달 간주”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민사 전자소송에서 문서를 등록했다는 통지를 한 뒤 일주일만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밝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1조 4항에 대해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통상 법원은 문서 등록과 함께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등록 사실을 통지해 왔다.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A씨가 항소심 변론에 2회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별도의 기일 지정 신청도 하지 않아 ‘소 취하 간주’로 소송

이 종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전자소송에 동의한 일방이 시스템에 등록된 전자문서를 ‘등록 사실을 법원이 알린 때 부터 1주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헌재는 “전자 송달 간주 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소송당사자가 일부러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전자문서의 확인은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하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 송달 간주 조항에서 정하는 1주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전남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효과’

6월까지 81명 ‘역대 최소’

전남도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을 역점 추진한 결과 올들어 6월 말까지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81명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을 적극 추진, 2017년 387명이던 사망자수를 2022년 202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초부터 고령자, 보행자 등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안전정책과 첨단 기반(인프라)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즌2’를 추진, 2026년까지 128명 수준까지 줄인다는 목표다.

특히 올해는 6월 말 현재까지 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1명)보다 30명이 줄고, 역대 최소를 기록했던 2022년(87명)보다도 6명이 줄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 추세라면 올해 목표치인 164명 달성이 무난할 전망이다. 이는 최초로 100명대에 진입하는 셈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민·관·경 교통 유관기관과 함께 법도민 의식개선운동·교통안전 시설인프라 확충에 힘썼다. 특히 올해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시군을 전남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방문해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 시군 컨설팅’도 추진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교육청, 학교·기관 14곳서

광주시교육청은 특수학교 6개교와 지역사회 8개 기관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6일 운영에 들어간 선예학교를 시작으로 8월 19일까지 열린다.

특수학교 방학 프로그램에 208명, 장애학생 방학학교에 178명 등 386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하루 5시간씩 10일간 취미활동이나 특기신장 활동 등에 참여한다.

시교육청은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방과 후 전담 인력을 특수학교에 배치하고, 운영 매뉴얼과 예산 등을 지원했다.

장애학생 방학학교는 지난해 7개 지역사회 기관에서 올해 8개로 확대해 장애 학생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사회 전문가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값어치는 기성중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